목 차

글로벌 AI 동향 ····· 1

해외 – 챗GPT에 '눈' 생겼다...실시간 영상 보여주며 대화하는 기능 추가 ····· 1

– 삼성전자, 내년 첫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출시 ····· 2

–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3

– 유튜브, 자동 자막번역 이어 자동더빙도 도입 ····· 4

– 하루 1억명 먹통 만든 '쳇, GPT'... AI 블랙아웃 경고 ····· 5

– 머스크 이어 저커버그도 '오픈AI 영리 법인 전환 반대'..."위험한 선례" ····· 6

정책 – 인공지능(AI) 보안 산업, 미래 경쟁력 좌우한다 ····· 7

–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추진...금융사, 업무효율성 높인다 ····· 8

기업 – 목소리로 진단하는 'AI 명의'...듣기만 해도 치매·당뇨 안다 ····· 9

챗GPT에 '눈' 생겼다...실시간 영상 보여주며 대화하는 기능 추가

■ 오픈AI는 12월 12일(현지시간) 챗GPT 모바일 앱에서 비디오 및 화면 공유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힘

- 해당 기능은 비디오나 화면을 공유하면서 챗GPT와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어 기존처럼 챗GPT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입력하지 않고도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됨
- 이는 오픈AI가 지난 5월 챗GPT의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을 공개한 뒤 7개월 만에 도입한 기능으로 챗GPT 채팅창 옆에 있는 음성 아이콘과 화면 왼쪽 하단의 비디오 아이콘을 눌러 사용할 수 있음

■ 오픈AI는 4명의 사용자가 챗GPT로 해당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줌

- "사슴의 뿔을 쓰고 있는 동료의 이름은?", "산타의 모자를 쓰고 있는 동료의 이름은?"이라고 물으니 정확히 이름을 말하고
- 커피 내리는 세트를 보여주자 챗GPT는 "커피세트가 보이네요. 커피를 내릴 계획인가요"라고 물었으며 이에 "커피 내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단계별로 커피 내리는 방법을 설명함

<오픈AI의 챗GPT 화면 공유 기능 시연 영상>

■ 챗GPT 플러스와 팀, 프로 서비스를 구독 중인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통해 '시각'을 가진 챗GPT와 대화할 수 있으며 미국 외 지역 이용자도 조만간 사용가능할 예정

-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지역 이용자에게도 곧 제공될 예정이며 엔터프라이즈 및 에듀 사용자는 내년 1월에 이용할 수 있음

출처 : 전자신문(2024.12.13.) 챗GPT에 '눈' 생겼다...실시간 영상 보여주며 대화하는 기능 추가

삼성전자, 내년 첫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출시

■ 삼성전자가 2025년 출시 예정인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플랫폼 '안드로이드 XR'과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無限)'을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첫 공개

<삼성전자 첫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無限)'>

■ '안드로이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플랫폼으로,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외부·가상 현실과 상호작용하도록 지원

- 기존 안드로이드, 오픈 XR, VR 및 모바일 AR 커뮤니티와의 개방형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 구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 앱·서비스 콘텐츠를 확보하며 플랫폼 규모를 확장할 계획
- 특히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또한 헤드셋과 글래스를 포함한 다양한 폼팩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특징으로 XR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형태의 기기를 지원할 예정

■ '프로젝트 무한'은 안드로이드 XR이 적용될 최초의 헤드셋으로 '무한(無限)'이라는 이름에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됨

■ 삼성전자 측은 최첨단 XR 기술과 사용 맥락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AI의 결합으로 새로운 폼팩터 혁신을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힘

출처 : 전자신문(2024.12.13.) 삼성전자, 내년 첫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출시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구글은 2023년 12월 '제미나이 1.0'을 처음 선보인 지 1년 만인 2024년 12월 11일(현지시간)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2.0'을 출시한다고 밝힘**

- 이는 구글이 지금까지 선보인 AI 모델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기능을 갖춘 멀티모달형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설명
- 자체 개발한 6세대 칩(TPU*)인 '트릴리움(Trillium)'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정보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를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듦

  * TPU(Tensor Processing Unit): 2017년 구글이 머신러닝을 위해 개발한 대규모 행렬 연산 특화 반도체

- 특히 다양한 기능 조합, 더욱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빠른 응답 속도, 복잡한 작업 처리 능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

■ **구글은 '제미나이 2.0' 제품군* 가운데 프로 모델을 경량화한 '2.0 플래시'를 개발자를 위한 플랫폼인 구글 AI 스튜디오와 기업용 플랫폼인 버텍스 AI에서 실험 모델로 제공**

  * '제미나이 2.0' 제품군은 매개변수 크기에 따라 울트라, 프로, 나노 등으로 분류

- 해당 모델은 이전 '제미나이 1.5'의 플래시 모델보다 두 배 빠르고 이미지와 동영상, 오디오와 같은 멀티모달 입력은 물론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이미지도 생성 가능

■ **구글은 구글 검색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포함한 전 제품에 '제미나이 2.0'을 빠르게 적용할 계획**

-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로, '제미나이 2.0'의 탑재로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응답 속도가 빨라지며 기억력이 강화
- 또 브라우저 화면의 정보를 이해하고 추론해 이용자의 복잡한 작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마리너'와 개발자의 코딩 작업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줄스'에도 '제미나이 2.0'을 탑재
- 특히 AI 어시스턴트 '딥 리서치'에도 탑재하여 이용자 지시에 따라 복잡한 연구를 수행하고 여러 단계로 연구 계획을 제시하며 웹에서 관련 정보를 심층 분석해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로 제공
- 아울러 '제미나이 2.0'의 고급 추론 기능을 구글 검색에 적용해 수학 방정식이나 멀티모달 질문 및 코딩 등 더 복잡한 질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구글은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는 '제미나이 2.0'을 장착한 'AI 오버뷰' 기능을 더 많은 국가와 언어로 확대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 전자신문(2024.12.12.)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유튜브, 자동 자막번역 이어 자동더빙도 도입

■ **유튜브가 12월 10일(현지시간) 자막을 자동 번역해주는 것에 이어 동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AI 기반 자동 더빙 기능을 선보임**

- 지난해 AI 기반 자동 더빙 도구를 처음 공개한 뒤 소수의 크리에이터 그룹을 대상으로만 테스트를 이어오다 이번에 일반 시청자용으로 정식 도입하기로 함

<유튜브 자동더빙 기능 설명 이미지>

■ **유튜브의 자동 더빙 기능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한 것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해 다른 언어로 음성을 더빙해 줌**

- 해당 기능은 요리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처럼 '정보'에 중점을 둔 채널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다른 내용의 채널에도 확대될 예정
-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총 9개로 한국어는 아직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출연자의 목소리 톤, 억양, 주변 분위기까지 반영해 더욱 자연스러운 더빙을 구현하는 새로운 기능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힘

■ **유튜브 측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동영상 오디오 트랙을 생성할 수 있는 더빙 도구를 앞으로 몇 달 안에 수십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앞서 유튜브는 2009년 동영상에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고 번역해주는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2012년 한국어도 지원 언어에 포함하였으며, 현재 해당 기능은 155개 언어에 적용되고 있음
-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출시된 자동 더빙 기능 역시 조만간 한국어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

출처 : 매일경제(2024.12.11.) 유튜브, 자동 자막번역 이어 자동더빙도 도입

하루 1억명 먹통 만든 '챗, GPT'... AI 블랙아웃 경고

- **챗GPT가 지난 12월 12일 오전 8시부터 접속 장애를 빚었다가 6시간여 만에 복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오픈AI는 시스템 데이터를 수집하는 새 원격 측정 서비스의 데이터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되었다고 밝힘**

- **한국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로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을 네이버·카카오·메타 등으로 확대했지만 오픈AI 등 새로운 AI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당시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자 메신저를 포함해 카카오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카카오 기반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관과 자영업자, 직장인들의 삶이 크게 흔들렸음

  - 현행법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정보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고 30일 이내에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해야 하지만 오픈AI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이번 사태로 사회기반시설이나 대형 기관·기업들의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챗GPT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AI 서버가 다운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

  - 미국 시장조사업체 디맨드세이지의 분석에 따르면 챗GPT에 접속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는 1억 2,400만 명에 달하며 국내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 중

<챗GPT 모바일 버전 국내 월간활성이용자(MAU) 추이>

  - 이번 챗GPT 장애 사태로 일상에서 필수재로서 역할을 넓혀가며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AI가 어느 날 작동을 멈출 경우 우리 사회가 'AI 재난'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옴

- **업계에서는 다른 기업의 AI를 백업 수단으로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등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균형있게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출처 : 국민일보(2024.12.17.) 하루 1억명 먹통 만든 '챗, GPT'... AI 블랙아웃 경고

머스크 이어 저커버그도 '오픈AI 영리 법인 전환 반대'…"위험한 선례"

-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
  - 저커버그는 서한에서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스타트업이 수익을 낼 준비가 될 때까지 비영리 기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힘
  - 오픈AI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타당하다면 비영리 법인 투자자들은 영리 기업 투자자들과 동일한 이익을 얻으면서 정부가 부여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 **앞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지난달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당시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영리 부서를 만들고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모해 AI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오픈AI를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
- **2015년 설립된 오픈AI는 현재 비영리 법인 이사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전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상황이 바뀌기 시작**
  - 올트먼의 지휘하에 오픈AI는 2022년 챗GPT를 출시한 후 영업 및 전략, 재무 직원을 고용하며 소비자와 기업 고객을 위한 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
  - 이후 올트먼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영리 관련 투명성 이슈로 내부 갈등을 겪으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CEO 자리에서 해임되었으나 오픈AI 직원들의 집단퇴사 압박과 투자자들의 압력 등으로 닷새 만에 복귀하여 오픈AI를 일반 영리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음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이 같은 주장은 격화하는 빅테크 간 AI 경쟁 속에서 오픈AI라는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
  - WSJ은 "메타는 오픈AI의 최대 경쟁자 중 하나이며 챗GPT와 맞먹거나 이를 능가하는 자체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오픈AI는 MS 및 애플과도 긴밀히 제휴하고 있다"고 전함

출처 : 뉴시스(2024.12.16.) 머스크 이어 저커버그도 '오픈AI 영리 법인 전환 반대'…"위험한 선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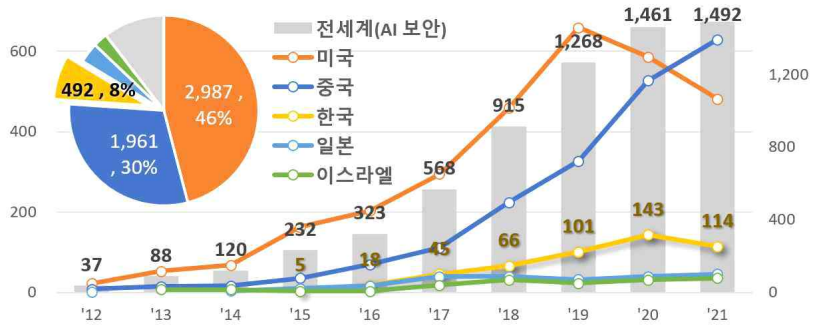
인공지능(AI) 보안 산업, 미래 경쟁력 좌우한다

■ 특허청은 최근 10년('12년~'21년)간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인공지능(AI) 관련 보안 기술 특허를 분석하여 발표

- 주요국 인공지능 보안 기술 특허 출원은 '12년 37건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51%씩 급성장하여 '21년에는 1,492건에 이름

■ 출원인의 국적은 미국(45.9%, 2,987건)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중국(30.2%, 1,961건), 한국(7.6%, 492건), 일본(3.5%, 225건) 순으로, 한국은 '17년에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해 매년 격차를 벌리고 있음

<국적별 인공지능 관련 보안 기술 특허출원 동향>



■ 인공지능 보안 기술은 'AI 활용 해킹 탐지 기술(BY AI)'과 'AI를 위한 보안 기술(FOR AI)'로 나뉘며 FOR AI는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68.1%씩 급성장하고 있는 기술 분야

- BY AI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해킹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기술이며 FOR AI는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

- BY AI는 전체 인공지능 보안 기술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기술이나 '19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19~'21, 연평균 1.7%)되어 현재는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10대 다출원 기업을 보면 IBM, 스트롱포스, MS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10개 중 9개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 이외의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6위를 차지해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

■ 한국의 인공지능 보안 기술 출원은 전 세계에 비해 기업 출원 비율이 낮은 대신 대학 및 공공기관의 출원이 높게 나타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전 세계 인공지능 보안 기술 출원은 기업에서 주도(78.5%)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업 출원 비율이 68%, 대학 및 공공기관의 출원이 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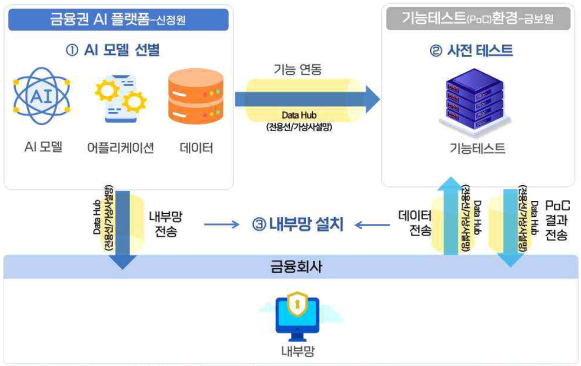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2024.11.24.) 인공지능(AI) 보안 산업, 미래 경쟁력 좌우한다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추진...금융사, 업무효율성 높인다

■ 금융위원회는 12월 12일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

■ 먼저 금융권 오픈소스 AI 서비스 개발 및 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여 회사 시스템에 맞는 AI를 선별해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예정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개요도>



<금융 AI 7대 원칙(안)>

금융 AI 7대 원칙(안)

*자료: 금융위원회

분 야	7대 원칙
거버넌스	①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함
	② AI 활용 전단계에서 금융·AI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③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 수단이므로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함
AI 개발 단계	④ AI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 함
	⑤ AI 설계·학습 등 전과정에서 금융 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AI 활용 단계	⑥ AI 활용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⑦ AI활용 시 보안성 기준 및 점검·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현재 세계 최대 AI 플랫폼에 등록된 오픈소스 AI 모델은 약 110만 개로 금융회사들이 내부 시스템에 적합한 모델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다운받아 내부망에 적용해야 해서 성능 및 안전성 검증에 한계

-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으로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유형과 IT 운영 전략에 따라 상용 AI와 오픈소스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트랙 AI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

  * 금융권 AI 플랫폼에는 금융분야에 적합한 오픈소스 AI 모델, 데이터 등을 전문가 그룹이 선별해 제공할 예정

■ 또 금융분야 생성형 AI의 학습 및 검증을 위한 금융권 특화 데이터를 구축하여 금융 전문성을 갖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

- 주요 오픈소스 AI 모델은 영미권 언어와 일반 데이터를 학습해 한국어 능력과 금융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

- 금융위원회는 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구축

  * 생성형 AI의 언어 학습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축한 대규모 텍스트 집합

- 현재 금융사기방지(금융결제원), 신용평가(신용정보원),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데이터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익 목적 데이터의 제공 채널을 금융권 AI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금융회사들이 이상거래탐지(FDS) 등에 AI를 더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지막으로 금융권 AI 개발·활용의 7대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여 금융회사들이 AI를 활용할 때 생기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출처 : 내일신문(2024.12.12.)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추진...금융사, 업무효율성 높인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12.) 금융권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진단하는 'AI 명의'...듣기만 해도 치매·당뇨 안다

■ 최근 치매나 당뇨, 심부전 등 다양한 질환을 목소리만 듣고 예측·진단하는 AI 기술들이 속속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음

<목소리로 각종 질환을 예측·분석하는 국내외 스타트업들>

기업명		주요 솔루션
VOINOSIS	보이노시스	목소리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브레인가드닥터', '보이스첵'
NEOPONS	네오폰스	목소리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음성청진기' 언어발달 장애 아동치료용 음성인식 모바일 게임 '토키랜드'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설립한 보이노시스는 목소리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기술을 개발

- 20여 년간 난청 환자 진료 경험을 기반으로 음성변화에 따른 뇌의 기능성 퇴화 패턴을 발견해 이를 기반으로 음성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AI 기술을 개발
- 해당 기술은 지난해 열린 '알츠하이머 질환 인공지능 판별 세계대회'에서 87%의 정확도로 치매 환자를 판별해 1등을 차지하고 미국에서 열린 '스타트업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정확도도 우수
- 보이노시스 측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음성 기반 치매 진단 솔루션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칠곡경북대병원 신경외과 부교수 출신이 이끄는 네오폰스는 목소리만으로 진찰받을 수 있는 앱 '음성청진기'를 개발

- 목소리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앱으로 언어분석을 통해 뇌졸중 등 언어 관련 질환을 약 95%의 정확도로 판별

■ 해외에서도 사람의 목소리로 질환을 진단하는 다양한 AI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

- 캐나다 헬스케어기업 클릭응용과학은 목소리로 2형 당뇨병 의심 환자를 판별하는 AI 모델을 개발, 음성 자료를 분석해 남성 86%, 여성 89%의 정확도로 당뇨병 의심 환자를 판별
- 그 외 영국의 블루스카이AI는 얼굴 근육이나 음성으로 알츠하이머·파킨슨 등의 질환을, 미국의 손드헬스는 목소리로 우울증과 호흡기 질환, 치매, 알코올 중독 여부까지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 중

■ 업계 관계자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목소리 발성이나 발음,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내 의료진들도 목소리로 폐 건강이나 심부전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함

출처 : 머니투데이(2024.11.20.) 목소리로 진단하는 'AI 명의'...듣기만 해도 치매·당뇨 안다